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 햇살나무가 2월 3일 신관 14층 휴게실에서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 환아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사진은 음악회에서 연주를 듣고 있는 환아들의 모습.

지난호 정답



제765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신년특집 - 2026, 다 이루어질지니'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수술간호팀 차주송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3월 1일(일)
 발표 제769호(2026년 3월 15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정미랑(심장병원간호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박양재(심장병원간호팀)
 홍진숙(내과간호1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송연(영상의학팀)
 이지운(수술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민지영(외래간호팀)
 서은지(진료지원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양소연(외과)
 조혜경(외과간호1팀)

이민향(특수검사팀)
 이준선(암병원간호1팀)
 홍연지(진단검사의학팀)



서울아산병원

VOL.767 2026. 2. 15



고위험 산모와 태아 생명 지켜낸 협진의 기적

심장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복잡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이준이, 국내 최소 체중으로 태어난 288g의 건우와 302g 사랑이, 심장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난 서린아... 생존 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작은 생명들이 우리 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체계적인 다학제 협진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우리 병원은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성장제한 등 일반 분만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동시에 신생아과를 비롯한 유관 진료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고난도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1월 28일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왼쪽 두 번째)가 올해 300번째 분만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3면)

심장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복잡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이준이, 국내 최소 체중으로 태어

02 NEWS 자가 판막 이용한 승모판 성형술 안전성 입증

12 헬스에디터 “가스 나왔습니까?”라고 묻는 이유

08 AMC IN(人)sight 정형외과 박세한 조교수

14 AI 현장 리포트 AI 등장과 의료의 변화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자가 판막 이용한 승모판 성형술 안전성 입증



김준범 교수 김기태 조교수

류마티스 심장질환은 류마티스 열 합병증으로 인해 심장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심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판막조직 변성이 심한 경우 인공판막으로 교체

하는 승모판 치환술이 표준 치료로 여겨져 왔는데, 폐교혈압 동반 등 위험인자가 없는 저위험군 환자의 경우 자가 판막을 최대한 살리는 승모판 성형술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준범 교수, 김기태 조교수팀은 200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우리 병원에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으로 승모판 성형술을 받은 환자 337명을 대상으로 평균 15년, 최장 2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년 생존율이 78.9%, 승모판 재수술 누적 위험이 10년 4.5%, 20년 12.7%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 ▲폐교혈압 지표(삼첨판 역류 속도 > 3.4m/s) ▲전엽 증대술 시행 ▲건삭 술식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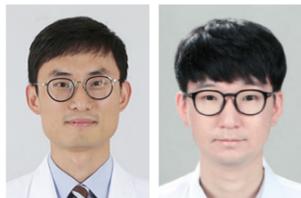
여부 등 승모판 재수술 위험을 높이는 4가지 독립적 위험인자를 규명했다. 류마티스염으로 수축된 판막 날개에 조직을 덧대는 전엽 증대술이나 판막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건삭을 재건하는 건삭술식 등을 받은 환자들은 그만큼 판막 손상 범위가 넓고 중증도가 높아 향후 재수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위험인자의 개수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 결과,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는 저위험군 환자의 경우 20년 내 재수술 위험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인자가 1개인 경우 12.7%, 2개 이상인 고위험군은 33.6%였다. 승모판을 조직판막으로 치환하는 경우 조직판막의 수명 문제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대부분 재수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승모판 성형술은 인공판막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범 교수는 “저위험군에서는 평생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치환술보다 자가 판막을 보존하는 성형술의 이점을 과학적 수치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흉부외과 분야 국제 학술지 「미국흉부외과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비흡연자 폐암 발생 위험인자 규명



지원준 부교수 곽현석 레지던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신규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흡연자로 보고되면서 흡연력 만으로는 폐암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국내 비흡연자

폐암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흡기내과 지원준 부교수, 내과 곽현석 레지던트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비흡연자 3,000명과 폐에 이상이 없는 대조군 3,000명을 일대일로 짝지어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만성 폐질환 유무가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흡연력이 없더라도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결핵 등 병력이 있는 경우 폐암 위험이 대조군보다 2.91배 높았다. 특히 COPD 환자는 위험이 최대 7.26배까지 높았는데, 폐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폐암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력과 사회-경제적 요인도 위험인자로 밝혀졌다. 1촌 이내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1.23배 높았고, 형제 자매가 폐암 병력이 있을 때 1.54배로 더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폐암 위험은 수도권 거주자보다 2.81배, 실업 상태인 경우는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산업-환경적 노출 차이, 의료 접근성, 경제적 요인 등이 건강 관리 및 의료 이용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호흡기 분야 국제 학술지 「체스트」 최신호에 게재됐다.

3건 중 2건 고위험 임신·태아기형... 고난도 분만 선도



1월 30일 열린 '산부인과 고위험분만 월 300건 달성'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전체 분만 중 고위험 임신과 태아기형 비중이 60%에 달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1월 한 달간 분만 329건을 달성했다.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등 잇따른 위기 상황에도 월 평균 200건의 분만을 꾸준히 시행하며 '빅5' 병원 중 가장 많은 분만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도 중증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 시행된 총 6,999건의 분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만 환자 중 고위험 임신 및 태아기형 케이스가 4,163건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조기진통 461건 ▲조기양막파수 723건 ▲중증 임신중독증

288건 ▲태반조기박리 51건 ▲전치태반 468건 ▲양수과다·과소증 155건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난도 분만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중증도가 높은 태아기형은 3년간 1,517건에 달해 출생 전부터 정밀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환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만을 주로 시행했음에도 우리 병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분만 및 치료를 마쳤다. 이는 분만장과 산부인과 병동, 신생아중환자실 등 현장에서 24시간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과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임상 경험이 만들어낸 성과다.

또 다른 원동력은 산부인과에서 시작된 치료가 신생아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심장과, 소아외과, 소아심장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등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에서는 연간 약 5,000건의 태아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며 태아기형을 조기에 진단하고, 출생 전 치료계획 수립부터 출생 후 치료, 예후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진료를 하고 있다. 원혜성 산부인과장은 “태아치료센터 고도화와 다학제 협진 강화를 통해 고난도 분만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고위험 산모와 태아들이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i활동 담당자 워크숍



2월 5일 진행된 워크숍 참석자들이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근본원인 분석' 실습을 하고 있다.

Pi활동 담당자 워크숍이 2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우리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목표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Pi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진료연속성 유지 ▲환자중심성 강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중점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부서별 Pi활동 대표, 리더 및 팀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질 향상 활동의 기본 개념 및 단계별 방법론 강의와 실습 ▲2025년 우수 Pi활동 및 노하우 공유 등 질향상 활동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년 연속 존경받는 병원 1위



우리 병원은 높은 수준의 의료 역량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바탕으로 20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에 선정됐다.

우리 병원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20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는 의료 혁신 역량과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사회적 책임 실천 전반에서 꾸준한 신뢰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산업계 종사자, 증권

사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 등 1만 1,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 병원은 ▲이미지가치 8.50점 ▲혁신능력 8.27점 ▲고객가치 8.16점 ▲직원가치 8.10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국내 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내 대표 30대 기업'에도 1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리 병원은 중증·희귀 질환 중심의 고난도 진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환자 경험 개선과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 의료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물론 혁신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서 국내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세포처리시설 개소



박승일 병원장, 오상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왼쪽 세 번째, 네 번째)를 비롯한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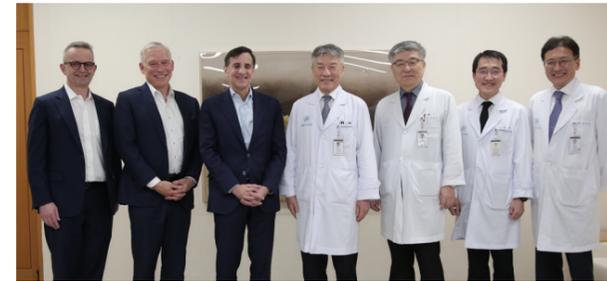
우리 병원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공동 설계한 전주기 세포치료제 위탁연구개발·제조(CRDMO) 시스템 '오닉스바이오파운드리' 세포처리시설 개소식이 2월 6일 열렸다. 개소식에는 박승일 병원장, 김태원 연구원장, 신동명 세포치료센터소장 등

보직자와 오상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병원은 2022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연구자의 의뢰에 따른 수탁 개발·생산이 가능한 병원 기반 세포처리시설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융합연구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세포처리시설은 무균제조실, 세포처리실, 무균시험실, 이화학 실험실 등 실제 임상 수준의 전문 제조 인프라를 갖췄다. 연구개발부터 제조, 품질시험, 임상, 규제 대응까지 세포치료제 개발의 전 과정을 신속히 연계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일 병원장은 "임상 현장과 제조 인프라가 결합된 세포처리시설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유전자 치료 연구 성과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총장단 방문



로널드 제이 대니얼스 총장, 박승일 병원장(왼쪽 세 번째,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로널드 제이 대니얼스 총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2월 11일 우리 병원을 찾았다. 1876년에 설립된 존스홉킨스대학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대학 순위 17위에 오른 명문대학이다. 로널드 제이 대니얼스 총장과 프리츠 슈뢰더 대외협력 부처장, 존 골드스타인 국제 교류 담당 이사 등 방문단은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양 기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이재환 진료부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소아응급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설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2월 10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이형훈 차관은 박승일 병원장, 이재환 진료부원장, 장성수 진료지원실장 등 경영진과 김원영 응급실장, 이종승 소아응급실장을 비롯한 현장 의료진을 만나 우리 병원의 주요 현황과 응급의료 지원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아응급실, 응급중환자실, 응급실, 감염관리센터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ERCP 15만례 기념 심포지엄



ERCP 15만례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도·췌장센터가 주최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ERCP) 15만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이 2월 7일 동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ERCP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세션으로 구성됐다. 심포지엄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ERCP 환자 안전 관리 ▲췌담도 투시 조영검사 시 방사선 선량 저감화 방안 ▲15만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환자 중심 팀 진료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중환자·외상외과 심포지엄



중환자·외상외과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1회 중환자·외상외과 심포지엄이 1월 31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의료진 240여 명이 참석해 ▲외상 소생술의 최신 표준과 임상 전략 ▲섬망 평가 및 재활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등 다양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중환자·외상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워싱턴대학교 엘린 불저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 헤이썸 카파라니 교수가 특강을 맡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 정

김태원 연구원장 세계 수상자 정상회의 기조연설



김태원 연구원장이 2월 1일부터 3일간 두바이에서 열린 2026 세계수상자 정상회의(World Laureates Summit, WLS)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 세계 수상자 정상회의는 노벨상, 필즈상, 튜링상 등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한 석학들을 중심으로 의학·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포럼이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둘째날인 2월 2일 '병원 리더 포럼 - 위기 시대의 헬스케어 리더십' 세션에서 '암 정밀 의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호석 교수 아·태 안종양·안병리학회 부회장



안과 사호석 교수가 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태 안종양·안병리학회(APSOOP)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APSOO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종양 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아·태 지역 안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 교수는 눈꺼풀종양, 안와종양 등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학회 강연을 통해 학회의 위상을 높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년이다.

권현정 조교수 우수학술상



마취통증의학과 권현정 조교수가 1월 31일 열린 제16차 대한신경조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을 받았다. 권 조교수는 '난치성 경추 수술 후 통증 환자에서 차등 표적 다중화 척수자극술의 적용'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정영심 과장 서울특별시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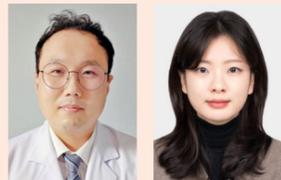


약제팀 정영심 과장이 최근 보건 의료 분야 활성화 유공 서울특별시 표창을 받았다. 정 과장은 마약류 관리 업무 고도화와 병원 약국 조제 업무 시스템화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 Top10 선정



전재용 교수 박세한 조교수 송주호 조교수 손우철 임상강사



천화영 박사 여운하 박사

우리 병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 Top10에 선정됐다. 과학기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272개 팀이 참가했다. 재활의학과전재용 교수, 손우철 임상강사, 천화영·여운하 박사, 김은하 연구코디네이터, 정형외과 박세한·송주호 조교수로 구성된 'AMIST' 팀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정형·재활 임상 연구지원 AI 에이전트 개발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위 10위팀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4월까지 GPU, API 등 개발 도구를 지원받아 재활의학과·정형외과의 임상 질문을 자동으로 해석하고 문헌 탐색 및 시뮬레이션 자율 실행을 통해 진단과 재활 예후를 예측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서 최다 합격

우리 병원이 최근 열린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문약사는 중앙, 심혈관, 장기기식 등 9개 분야의 약물 치료에 대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뜻한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병원은 ▲감염 2명 ▲내분비 3명 ▲노인 3명 ▲소아 4명 ▲심혈관 7명 ▲장기기식 3명 ▲정맥영양 4명 ▲종양 9명 ▲중환자 1명 등 9개 전 분야에서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문약사가 국가자격으로 공인된 2023년부터 우리 병원에서 총 82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병원 약제 업무의 질적 향상과 환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

보직임명

중앙내과 교수 김선영 임 : 완화의료센터소장
- 2026. 2. 1부.

울산의대 교원 정년식



울산의대 교원 정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학년도 2학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정년식이 2월 9일 교육연구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년식에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동관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운 교수, 감염내과 김양수 교수, 소아청소년과 고태성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임정길 교수, 병리과 장세진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공로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임영석 의과대학장의 인사말과 공로패 전달에 이어 채희동 의무부총장과 박승일 병원장의 축사, 정년 교수들의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간안내



스스로 중심 잡는 아이들의 비밀, 자기결정력

지은이: 김효원
가격: 19,800원
페이지: 392쪽
펴낸곳: 푸른숲
발행일: 2026년 1월 30일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24년간 진료 현장에서 10대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을 상담해 온 임상 경험과 사춘기 자녀를 키운 부모로서의 실제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쓴 '스스로 중심 잡는 아이들의 비밀, 자기결정력'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자기결정력을 발달당한 아이들 ▲무엇이 진짜 지능과 사회성을 만드는가 ▲약보다 중요한 건디는 능력 ▲자기결정력을 가진 아이는 무엇이 다른가 총 4부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부모가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과 실천적 해법을 함께 제시한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및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서은지	10,000,000
박신준	성백찬	10,000,000
서상규	안현수	200,000
손귀연유외과의원	이경림	1,200,000
어준규	이혜정	500,000
이도형	(주)지아이티	10,000,000
이석현	추상혁	1,200,000
이철수	황성규	200,000,000
장종화		500,000
조이든		100,000
(주)가든즈		50,000,000
최지혜		300,000
황성규		500,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불우환자 지원	불우환자 지원	
마디척재활의학과	이지수	1,000,000
박희선	최재문	1,000,000

(단위: 원)

[Zoom in]



유튜버 쓰앙이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해 최근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쓰앙은 "투병 중인 어린이 구독자의 댓글을 계기로 아픈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결정했다. 1,300만 구독자 모두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소아 환자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연구와 의료시설 보완, 병원학교 운영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유튜버 쓰앙이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해 최근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쓰앙은 "투병 중인 어린이 구독자의 댓글을 계기로 아픈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결정했다. 1,300만 구독자 모두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소아 환자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연구와 의료시설 보완, 병원학교 운영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 2026년 1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조금 더’의 노력이 더 나은 결과로 축적되다



정형외과 박세한 조교수 진료실에서 마비 환자가 서서히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기 시작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박세한 조교수는 드라마 같은 순간을 종종 만난다. “모든 환자와 겪는 치료 과정이 제가 성장해나가는 단계”라는 그는 항상 조금 더 고민하고 도전하며 회복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환자 경험에서 쌓이는 자산

박세한 조교수는 아버지를 통해 의사라는 직업을 지켜 봐 왔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자기 희생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환자와 오래 인연을 이어 가는 데서 의미있는 직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 역시 의사가 되어 새로운 케이스에 계속 도전하는 대학병원에 남았고 현재 정형외과에서 척추 질환 전만을 치료하고 있다. 환자와의 인연도 하나둘 늘었다. 뼈가 자라지 않는 연골무형성증 13살 환자도 그중 하나였다. 유전자 변이로 흉추와 요추 공간이 매우 좁아 신경을 압박하며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걷는 데 제한이 있었다. 합병증과 마비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환자와 부모 모두

지체장애를 안고 있어 의사결정이 어렵고 상태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박 조교수는 환자의 친척을 통해 환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설득을 통해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6개월, 환자는 손편지를 전했다. 교수님 덕분에 이제 잘 걷고 탁구도 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환자들과 함께 겪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저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환자분들의 감사 표현은 마음의 자산이 되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그가 만나는 암 환자의 경우, 치료 목적이 완치가 아닌 여명을 조금 더 편안히 하기 위한 방편에 가깝다. 네 번의 암을 겪고 척추까지 전이된 25세 환자를 만났다. 두

번의 수술에도 암은 빠르게 재발했고 호흡 마비까지 진행됐다. 의식이 남아있던 마지막 순간, 환자는 그동안 최선의 치료를 해줬으니 교수님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가 환자 앞에서 운 것은 처음이었어요. 끝이 정해진 상태로 만났다 해도 좋은 기억이 될 순 없죠. 하지만 마지막 길에 함께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환자를 보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경험도 잊지 못할 자산이 될 거예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한 정성

척추 손상으로 발생한 신경 기능의 문제는 원인을 제거해도 회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없어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대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수술 후 환자 만족도가 크게 달라져요. 저 또한 환자의 필요를 파악하다 보면 수술을 권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는 수술 속도가 실력을 나타내는 지



표로 여겨지기 쉽지만 정성을 얼마나 들이는데 따른 효과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번 더 돌아 보고 놓친 게 있는지, 신경 공간을 좀 더 넓게 띄워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성을 쌓을수록 더 나은 결과로 나타나죠.”

최근 팀 차원의 노력에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기 회복, 수술 감염 방지, 욕창 방지 프로토콜 등을 구축하자 안정성과 치료 수준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다. “내심 부수적인 요소라고 여기며 효과를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 이후 1년간 척추 감염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경험이나 실력에 기대던 것에서 이제는 팀 전체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수적일 수 있는 작은 걸음이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 치료 수준을 높여갑니다.”

표준을 밝혀나가는 연구

척추 파트는 같은 줄기 안에서도 관여하는 인자가 많아 환자마다 치료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치료 원칙이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순 없지만 최대한 그 가지들을 밝혀 환자마다 달리 적용해야 할 주의점과 수술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어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자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측정하며 하나씩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추 신경근병증에서 추간공 높이가 수술의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최근 북미경추연구학회에서 2등상을 수상했다. 환자의 수술 경과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추간공 높이에 따른 인자를 밝힌 것이다. “제 환자 치료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이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립하고 연구나 임상 분야에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마취 노하우 필리핀 간이식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온
크리스틴 포블라도르 임상강사



저는 필리핀 마카티 라이프 메디컬센터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6년 동안 일반외과 마취를 담당해 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알게 된 건 남편을 통해서였어요. 남편이 몇 해 전 간이식·간담도외과에서 연수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 장기이식 분야를 선도하며 임상, 연구 모두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난도 장기이식 마취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이식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수술인 만큼 세심한 마취 관리와 환자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폐동맥 카테터, 경흉심장초음파와 같은 첨단 장비 활용법과 BIS(바이스펙트럼 지수), ANI(진통통각 지수) 측정 등 고난도 수술에서의 모니터링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연수 초반, 농축적혈구를 100팩 넘게 투여하는 대량 수혈 상황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수술실 의료진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동료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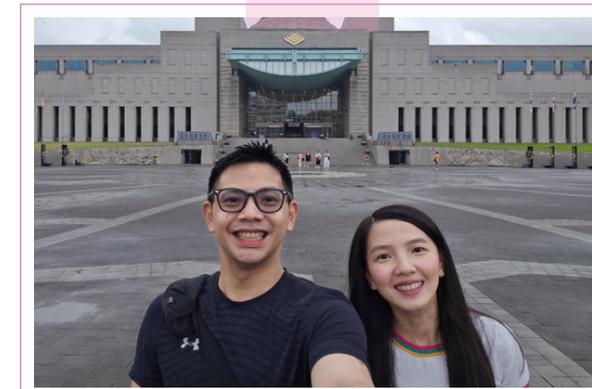
멋진 수술실 동료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 번째가 크리스틴 포블라도르 임상강사.

식당과 휴게실까지 갖춘 수술실, 최고예요!

서울아산병원은 제가 근무하던 병원보다 규모가 세 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엄청난 규모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항상 놀란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수술실에서 보내는데, 수술실 안에도 식당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웃음). 바쁜 일정에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길 수 있어 아주 만족해요. 잠시 짬이 나면 휴게실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 연수생들과 수다를 떨기도 해요. 몇 마디 대화에도 깊게 정이 들어 이미 모국으로 돌아간 연수생들과도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수술실 휴게실에서 해외의학자들과 함께 🙌



남편과 함께 찾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에 왔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북촌한옥마을을 둘러본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K드라마에서 보던 복장과 장소를 직접 경험하니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전쟁기념관과 DMZ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이 유엔군으로 참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의 사인 제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황규삼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고 싶어요!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시간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안전한 마취 프로토콜, 첨단 모니터링 기술, 정확한 임상 판단력 등을 필리핀의 간이식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남은 연수 기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지도교수인 마취통증의학과 황규삼 교수님을 비롯해 연수 과정 전반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송준걸, 전인구, 김경선, 권혜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스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



대장항문외과 김민현 부교수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 혹은 의학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의사가 회진 때마다 던지는 기묘한 질문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가스(방귀) 나왔어요?”다. 일상에서라면 다소 무례한 질문이지만 외과 병동에서 이 한마디는 아침 인사를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다. 왜 외과 의사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토록 환자의 ‘엉덩이 소식’에 집착하는 것일까.

장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서가 있다

전신마취 하에 복부 수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의식뿐 아니라 위장관의 운동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수술 중 장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 마취제와 진통제의 영향, 그리고 수술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생리적 수술 후 장폐색’이라고 한다. 반면 수술 후 4일 이상 장운동이 회복되지 않거나, 식사 후에 구토나 복통 등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계하는 바로 이 경우가 ‘지연성 수술 후 장폐색’이다.

흥미로운 점은 마취에서 깰 때 위장관 각 부위가 회복하는 속도에 뚜렷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통 소장은 수술 후 수 시간에서 하루 내에 가장 먼저 운동성을 회복하고, 위는 그보다 하루 정도 늦다. 가장 늦게 깨어나는 장기가 바로 대장인데 통상 48시간에서 72시간, 길게는 4~5일까지도 마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가장 말단에 위치한 대장이 깨어나지 않으면 위나 소장이 기능을 회복하더라도 흐름이 정체돼 식사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가스가 나왔다는 것은 대장이 운동성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위와 소장 역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왔음을 시사한다.

인체라는 공장의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

소화기관계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에 비유해 보자. 입에서 잘게 부서진 원재료(음식)가 소화효소와 섞이고 소장이라는 공정 라인에서 영양분이 흡수된다. 이후 남은 부산물은 대장으로 전달돼 최종 제품(대변)으로 포장된다. 이 공장의 최우선 목표는 막힘 없는 원활한 흐름이다. 원재료가 처리 능력 이상으로 쏟아져서도, 공정 중간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리 중인 재료가 파이프 밖으로 새어 나와 공장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점이다.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그토록 가스 배출을 기다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장암 수술처럼 장을 절제하고 다시 이어 붙이는 ‘장문합술’의 경우, 연결 부위가 좁아지거나 꼬이는 기계적 폐색 또는 제대로 붙지 않아 장 내용물이 새어 나오는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을 초래한다.

이때 환자가 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장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물리적으로 막힌 구간(기계적 폐색)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 장의 연동 운동이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끊김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기능적 회복의 증거다. 즉 가스 배출은 복잡한 검사 없이도 치명적인 합병증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춰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임상적 지표다.

콧줄의 고통,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프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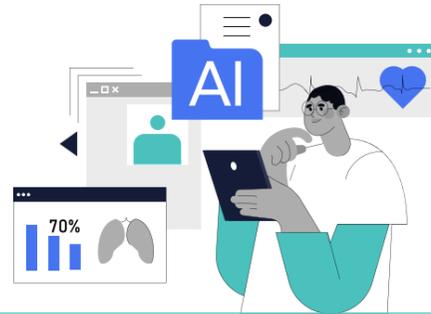
만약 가스가 나오지 않고 배만 계속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지 않는 장에 위산과 소화액이 고이면서 환자는 극심한 복부 팽만감과 구토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처치 중 하나인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을 시행한다. “교수님, 수술한 배보다 콧줄 낀 목구멍이 더 아파요”라는 호소가 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의료진이 가스를 기다리는 이유에는 이 힘든 치료 과정을 환자가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장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ERA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ERAS는 수술 전 금식을 최소화하고 수술 중 마취와 통증 조절을 최적화하며 수술 직후부터 보행과 식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장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멈춰 있는 엔진을 빠르게 ‘점프 스타트’ 하는 것이다. 환자의 가스 배출은 이러한 예방적 노력이 성공하여 비위관 삽입과 같은 고통스러운 절차 없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병동에서 의료진이 “가스 나왔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생리 현상을 확인하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다. 이는 “환자분의 장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되살아났습니까?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회복의 궤도에 올랐습니까?”라고 묻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외과의사에게 환자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수술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상징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다.

의료 AI는 어디까지 왔을까: AI 등장과 의료의 변화

AI혁신지원실 박범우 특수전문학자



많은 분들이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천 년간 인간의 영역이었던 바둑에서 AI가 보여준 정교한 수읽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의료 AI 분야에서는 이미 알파고 이전부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대규모 이미지넷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국제대회 ILSVRC에서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튼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일리아 수츠케버 OpenAI 공동창립자,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연구팀이 개발한 알렉스넷(AlexNet)이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하며 AI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설계하던 시대가 끝나고 AI가 스스로 규칙을 찾는 딥러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픽 작업 전용이던 GPU는 딥러닝 학습을 위한 병렬 연산 장치로 확장되었고, 의료영상 분석 분야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바둑 기보를 학습해 고수가 된 알파고처럼, 수백만 장의 X-ray, CT, MRI 영상을 학습한 AI는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내는 판독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AI 대표 기업인 루닛과 뷰노 등의 소프트웨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영상의학을 넘어 병리학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리 슬라이드를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 페이지(Paige)가 개발한 전립선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2021년 병리학 AI 기술로는 사상 최초로 미국 FDA의 ‘드 노보(De Novo) 선행기술이 없는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AI가 암의 1차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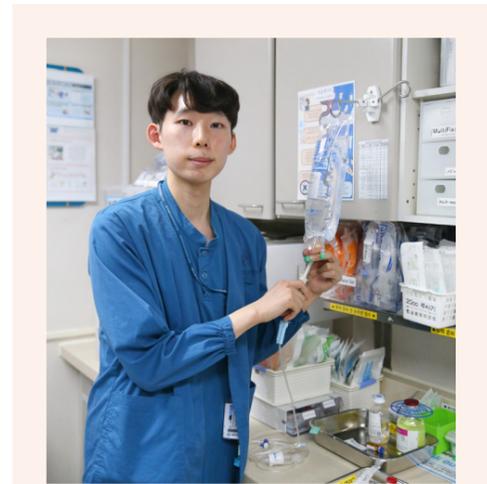
과정에서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017년 구글은 비틀스의 명곡 ‘All You Need Is Love’을 패러디한 제목의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통해 새로운 딥러닝 구조인 트랜스포머를 제안했습니다. 문장 속 단어들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탁월한 이 구조는 BERT, 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초석이 되었고, 단순 텍스트를 넘어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클라라(Clara), 바이오네모(BioNeMo) 플랫폼은 의료· 제약 등 생명과학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인실리코 메디신(Insilico Medicine)은 AI가 발굴한 질병 타깃을 기반으로 AI가 설계·합성한 후보물질을 임상 2상까지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3~4년이 걸리던 과정을 단 18개월로 단축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AI는 이미지나 텍스트 하나만 보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오감을 통합 활용하는 ‘다중모달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AI가 폐 X-ray 한 장을 보고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면, 미래의 AI는 “환자의 유전적 특징 유전체 데이터, 최근 기침 기록 텍스트, X-ray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A 약물이 가장 적합하다”는 개인 맞춤형 처방을 내립니다. 영상, 텍스트, 유전체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의료진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인간 중심 Human-in-the-loop 모델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AI는 이제 의료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협력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AI 현장 리포트’ 코너에서는 의료 AI의 발전 흐름과 트렌드, 우리 병원만의 의료 AI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외과간호1팀 신영주 사원입니다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164병동에는 좋은 선생님이 많아 힘든 날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환자분들도 저로 인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입사하기까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학생 때 AI면접 설명회에 서울아산병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갔어요. 국내 1등 병원에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거든요. 병원 1차 면접에선 “면접관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라며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 너무 건방졌나 싶어 이불킥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64병동에서 신경외과 환자를 간호하죠? 맞아요. 신경외과 파트는 공부할 것이 많고 환자들의 사소한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야 해요. 신규 간호사로서 도움 요청할 일이 많은데 유닛 매니저님, 현장교육 선생님, 프리셉터와 병동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도우며 조언해주는 분위기여서 든든합니다.

업무 중에 잘 맞는 일을 꼽아 본다면? 환자 교육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섭취량과 배설량 작성 방법을 설명들은 환자분이 잘 이해했을 때 보람차거든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도 교육입니다. 병원 환경과 설명 내용이 낯설고 같은 설명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괜찮아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식적 근거를 기반해서 안심시키는 것도 간호사로서 중요한 역할일 테니까요.

일에 대한 성과는 언제 느끼나요? 칭찬 카드를 받을 때요! 지금까지 8개를 받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메일함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칭찬 카드를 받기 위해 일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에 대한 성과처럼 느껴져요. 한 환자분이 “일이 힘들죠? 잘 하고

있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을 땐 제 어머니보다 더 따뜻해서 감동받기도 했어요. 하하.

상태가 많이 호전된 환자분들을 보며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엔 비위관을 손으로 뽑고 침대 밖으로 나와 낙상하는 등 항상 걱정되던 환자분이 퇴원할 때 장난 치고, 본인 이름을 말하는 등 눈에 띄게 좋아지면 병동과 진료과, 재활의학팀 등의 다학제적 성과를 실감하죠.

병원 생활의 활력소가 있나요? 달마이어 카페라떼를 정말 좋아합니다. 달달하면서 고소해요! 데이 근무 후 라떼를 사서 도서관에 갔다가 테이크아웃식을 챙겨 퇴근하는 게 저만의 소확행입니다.

지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단 프리셉터를 할 때까지 병동에 잘 남고 싶어요.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함을 깨달아가는 과정



기획팀 김현성 대리

소설 『싯다르타』는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 싯다르타는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과 방황을 거듭하지만 결국 그러한 욕망마저 내려놓아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 소설은 부처가 되기 위해 갖은 노력과 방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수행자의 삶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싯다르타는 삶의 진리를 얻기 위해 구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세속을 떠나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 즉 '사문'이 되어 웃도 입지 않고 곡기마저 끊는 고행을 이어가지만 그는 고행만으로는 가르침을 얻을 수 없으며 스스로 삶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느낀다. 부처 고타마의 제자가 될 기회도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사문의 길을 내려놓는다.

세속에서의 방황 이후 싯다르타는 여인 카밀라에게 사랑을 배우고 거상 카마스바미를 통해 세속의 삶을 익히며 술과 도박, 쾌락 속에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구도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며 자살 충동에 빠진다. 극심한 패배감 속에서 방황하던 싯다르타는 우연히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나 그의 곁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된다.

평범함을 깨닫는 과정 강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연인 카밀라가 뱀에게 물려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가 남긴 자기 아들을 돌보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를 싫어하는 아들은 도망치고 싯다르타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절망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 고통을 통해 그는 과거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업보를 깨닫고 자신이 그토록 한심하게 바라보던 평범한 사람들의 번뇌와 욕망 또한 삶의 소중한 일부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구도자의 삶 싯다르타는 타인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보던 오만함을 내려놓는다. 강물처럼 삶의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싯다르타였던 나를 되돌아보며 나 역시 많은 직무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에 부딪힐 때마다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자존감은 떨어졌고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돌이켜 보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는 그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욕구가 더 컸던 것 같다. 집착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건강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동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타인의 도움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아집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나의 강점 또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나 역시 혼자가 아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수많은 직장인 중 한 사람임을 깨닫게 됐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나는 싯다르타의 일생에 나를 투영하며 평범함의 소중함을 배웠다. 앞으로도 대단한 누군가가 되기보다 기꺼이 곁을 내주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보통의 동료'로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자 한다.



싯다르타

저 자 : 헤르만 헤세 | 옮김 박병덕
출판사 : 민음사
발행일 : 2002년
페이지 : 244쪽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바람을 가르며 라이딩!



수술간호팀 차주송 주임



좋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자전거와 함께한 순간이 유독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내내 한강을 따릉이로 내달렸고, 마침 적금 만기일이 돌아와 자전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는

7년 전, 우연히 한강에서 따릉이를 타게 됐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페달을 밟았을 뿐인데 강변의 풍경과 선선한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날이

자전거의 가장 큰 매력은

자전거도로는 대개 강과 숲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풍경과 호흡이 집중하게 되고 머릿속이 차분해집니다. 제가 타고 있는 로드 자전거는 심박수와 파워, 속도 같은 수치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실력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점도 제 성향과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무릎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관절에 부담이 큰 운동을 피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는 비교적 관절에 부담이 적고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와 관련한 나만의 꿀팁은

Zone 2 중심의 유산소 훈련입니다. Zone 2는 최대 심박수의 60~70% 수준으로,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말합니다. 이 강도로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체력 향상은 물론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호흡도 훨씬 편안해지죠. 체력을 길러 자전거를 더 잘 타는 것을 넘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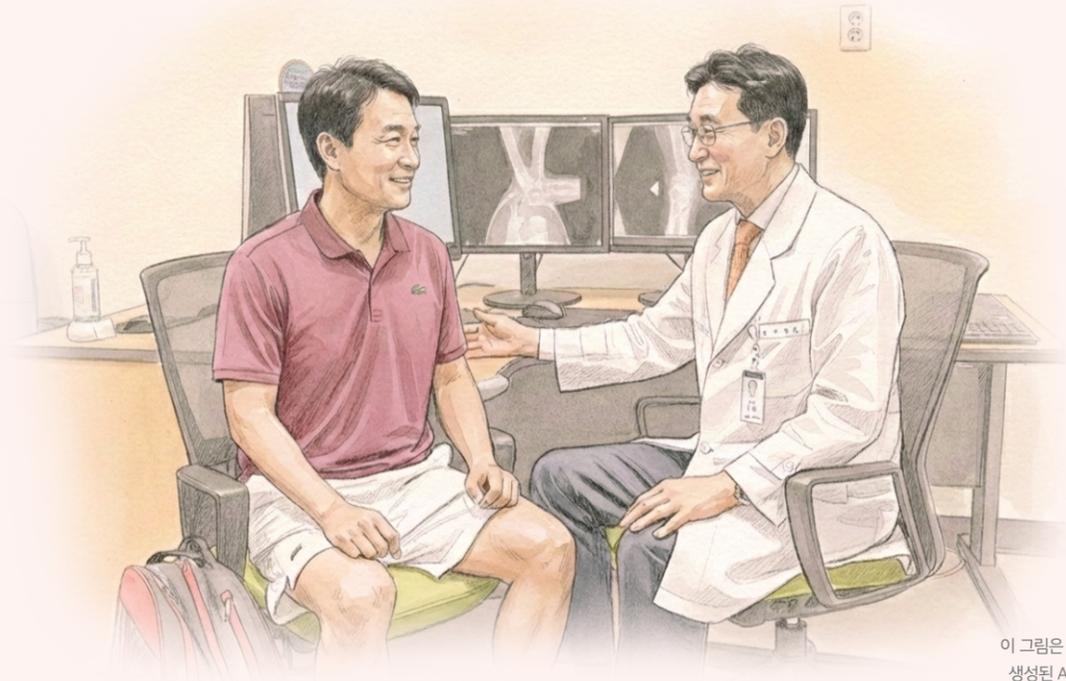
자전거를 타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잠실에서 속초까지 이어진 장거리 라이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치기로 '해볼 만하겠지'라며 도전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리는 동안 체력은 한계에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 이건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에도 천천히 꾸준히 나가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온몸으로 배운 하루로 남았습니다.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중한 일상으로

테니스를 치다 오른쪽 팔에 통증이 생겨 한동안 운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테니스엘보 근육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했지만,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른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전인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MRI를 꼼꼼히 살핀 뒤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고, 예약과정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2박 3일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불안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저는 교수님과 의료진 덕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주신 전인호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오랜 치료 과정 속에서 다시 희망을 되찾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의료진 모두에게 큰 보람이 됩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분의 입장에서 최상의 의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회복 과정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근 기행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



출근하며 신관 창밖으로 보이는 중앙숲의 풍경이 매일 조금씩 달라 집니다. 봄날의 푸른 새싹과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벚꽃. 여름날의 풍성한 녹음과 햇볕에 반짝이는 계수나무 잎새. 노랑고 붉게 물드는 가을의 단풍. 눈 무게에 휘어진 가지와 바람에 날리는 눈발까지. 30여 년을 매일 보아 왔어도 같은 풍경은 하나도 없네요.

“반달”(1924, 윤극영 작사·작곡)에 나오는 계수나무의 잎새가 귀엽고 동그란 하트 모양인 걸 안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는 동요 속 계수나무는 중국 전설의 계(桂)나무인데 향이 강한 '금목서(Orange Osmanthus)'로 추정된다는 것, 우리가 아는 계수나무는 '카쓰라(かつら)'라는 일본 원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가사는 서양 세력(그리고 이를 등에 업은 근대 일본)의 범람에 조각배처럼 일렁이던 조선의 운명을, 2절의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는 동쪽 별(동양 정신)을 바라보고 정신을 추스르자는 뜻이 담긴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음식, 안 가본 곳, 최신



2025.7.26 765호 중앙숲 계수나무 잎새



영화, 신기한 물건, 쏟아지는 유튜브 영상들... 하지만 새로움이란 없던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 있었는데 나만 못 보고 있던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동료와의 짧은 아침 인사, 신문 기사 한 줄, 출퇴근길의 평범한 풍경, 직원식당 식사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 미묘한 변화를 읽는 섬세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32년간의 서울아산병원 생활을 마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1, 2년 지나면 또 새 생활에 익숙해지겠지요. 모두들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움과 그 의미를 보고 읽는 마음의 시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암병원간호2팀 안희남 차장

'감사우체통 - 1kg을 향한 시간'을 통해 산모의 마음까지 보듬은 간호사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한 돌봄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네요.

외과간호팀 · 혜정 대리

'신년특집 - 2026, 다 이루어질지니'에서 동료들의 다짐을 읽으며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의 소망도 함께 빌어봅니다.

피부과 윤정은 연구코디네이터

'AMC광장 -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회복의 시작까지' 코너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위중한 상황 속에서 홍석경 교수님의 치료로 회복한 경험이 있어 더욱 공감했습니다.

암병원간호팀 이은경 대리

'신입직원들의 현장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도와' 기사 사진에 우리 병동 신규 간호사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영상의학팀 나어진 대리

'AMC 리얼스토리 - 서린이 가슴 안에 희망이 뛰고 있어요'를 읽으며 태어났던 서린이의 검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준 서린이, 고마워!